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3, pp. 145-152,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145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건강행태 차이에 대한 융복합 연구

이한나[1], 조해련[2*]
[1]원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2]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Convergence Study on Difference of Health Behaviors depending on wether Sexual Experiences of Adolescents

Han Na Lee[1], Haeryun Cho[2*]
[1]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융복합 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 분석 연구로, 총 61,86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 남학생, 고등학생, 남학교, 낮은 학업성적, 부모와 따로 거주, 높거나 낮은 경제 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에 있어서는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 슬픔·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음주,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피임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48.9%로 나타났고, 주로 콘돔을 이용하였다. 청소년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을 고려하여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융합연구, 건강행태, 성 행태, 성경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of adolescents depending on their sexual experiences. Secondar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61,861 respondents from the 2017 adolescents'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in Korea. Adolescents with sexual experience were typically male, in high school, from a boy's school, had low academic performance, lived apart from their parents, and of either high or low economic status; their health behaviors were characterized by more physical activity, stress, sadness and hopelessness, thought/planned/attempted suicide, drinking, and smoking. Almost half of adolescents with sexual experience (48.9%) did not use contrace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and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ex education programs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sexual health

Key Words : Adolescent, Convergence study, Health behavior, Sex behavior, Sex experience

This study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Haeryun Cho(chr@wku.ac.kr)
Received January 3, 2020 Revised February 25, 2020
Accepted March 20,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아동의 신체적 성장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소년의 성호르몬 분비 시작 시기 또한 빨라지고 있다[1]. 이에 과거보다 어린 연령의 청소년에서 성인 수준의 신체적 발달과 함께 성적 충동을 표출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성 문제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되고 있다[2,3].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개방화된 성문화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분별없는 성적노출과 성적표현들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3]. 올바른 성의식과 성태도가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성경험이나 피임에 관한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인한 충동적인 성경험을 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4-6].

2005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의 성경험이 2005년 4.8%에서 2017년 5.2%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첫 성경험의 연령이 2005년 13.6세에서, 2016년 13.1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7,8]. 이처럼 청소년들의 성경험 시기가 빨라지면서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4명 중 1명은 임신을 경험하며 임신한 청소년 10명중 8명은 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9].

건강행태의 일반적인 정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의 여러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8]. 그러나 청소년 시기의 성경험은 경험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흡연, 음주, 약물과 같은 건강 위험 행태와 중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4,10,11].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약물 사용은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의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있다[11].

청소년의 성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대상자를 중·고등학교로 구분하거나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한 성경험 영향에 관한 연구[12-15]가 있으며,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연구에서 성경험과 관계된 일반변수를 다룬 연구[11,16-18]들이 있으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성행태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기관이 시행한 제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하는 특성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행태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건강행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수행한 제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 분석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원시자료를 질병관리본부의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이며 15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행태 및 성행태의 일부 자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였고, 총 62,276명에서 결측값을 제외한 61,861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 학교 구분, 학교유형, 학업성적, 거주형태, 부모님 학력, 경제상태, 성교육 경험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였으며, 학교유형은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로 구분하였다. 학업성적은 원시자료에서는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상, 중상)', '중', '하(중하, 하)'로 재분류하였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친척 집에 살

고 있다.' '하숙, 자취(친구와 함께)', '기숙사'로 구분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각각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교 졸업 포함),' '잘 모름'으로 분류하였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상(상, 중상)', '중', '하(중하, 하)' 재분류하였다.

2.3.2 건강행태

청소년의 건강행태 특성은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근력 강화 운동 일수, 스트레스 인지, 슬픔·절망감 경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음주 경험, 흡연 경험을 분석하였다. 신체적 활동은 최근 7일 동안을 기준으로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찰 정도로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한 일 수가 '최근 7일 동안 없다', '주 1일에서 주3일', '주 4일에서 주 7일'로 분류하였다.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와 근력강화 운동 일수는 '최근 7일 동안 없다.', '주 1일에서 주 3일', '주 4일에서 주 5일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에 대하여 '많이 느낀다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로 재분류하였다. 슬픔·절망감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의 느낌 유무로 분류하였고, 자살에 대해서는 최근 12개월 동안의 자살 생각·자살 계획·자살 시도의 유무로 분류하였다. 음주 경험은 평생 음주 경험으로 '지금까지 1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유무로 분류하였다. 흡연 경험은 평생 흡연 경험으로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유무로 분류하였다.

2.3.3 성행태

성행태는 성경험 있는 청소년의 피임 실천, 피임 방법 분석을 위하여 피임 실천은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습니까?'에 대하여 '항상 피임을 했다'. '대부분 피임을 했다'. '가끔 피임을 했다'. '전혀 하지 않았다'로 분류하였다. 피임 방법은 '먹는 피임약', '콘돔', '질외사정', '월경주기(날짜피임법)',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 '자궁내장치(루프)', '피임 안함'으로 분류하였다.

2.3.4 내용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간호학과 교수 2인과 간호학 전공 박사과정생 4명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2회 검증받았다. 설문지와 자료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성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를 사용하였다. 성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와 건강행태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χ^2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 남학생은 49.7%이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남학생은 7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467.04, p<.001).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95±1.75세이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96±1.57세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52.65, p<.001).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49.2%가 고등학생이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3.9%가 고등학생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656.00, p<.001). 또한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17.2%가 남학교인 반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7.1%가 남학교 학생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288.66, p<.001).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31.7%가 학업성적이 낮았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0.1%가 학업성적이 낮았다(χ^2=92.10, p<.001).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8%는 하숙이나 자취를 하였고 2.3%는 각각 친척집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거주형태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461.14, p<.001).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2.3%는 경제상태가 높았고 21.0%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제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60.81, p<.001).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22.3%가 성교육의 경험이 없는 반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0.4%가 성교육의 경험이 없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01.28, p<.001).

Table 1. Differ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exual Experience (N=61,861)

Variable	Total	Non-experienced (n=59,034)	Experienced (n=2,827)	t/x^2	p
	M±SD/ n(%)	M±SD/ n(%)	M±SD/ n(%)		
Gender					
Male	31,353 (50.7)	29,359 (49.7)	1,994 (70.5)	467.04	<.001
Female	30,508 (49.3)	29,675 (50.3)	833 (29.5)		
Age	15.00±1.75	14.95±1.75	15.96±1.57	952.65	<.001
School					
High school	31,146 (50.3)	29,057 (49.2)	2,089 (73.9)	656.00	<.001
Middle school	30,715 (49.7)	29,977 (50.8)	738 (26.1)		
Type of school					
Boy/girl school	39,939 (64.6)	38,124 (64.6)	1,815 (64,2)	288.66	<.001
Boy school	10,905 (17.6)	10,139 (17.2)	766 (27.1)		
Girl school	11,017 (17.8)	10,771 (18.2)	246 (8.7)		
Grade					
High	24,291 (39.3)	23,279 (39.4)	1,012 (35.8)	92.10	<.001
Middle	11,750 (28.7)	17,070 (28.9)	680 (24.1)		
Low	19,820 (32.0)	18,685 (31.7)	1,135 (40.1)		
Type of staying					
With family	58,920 (95.2)	56,414 (95.6)	2,506 (88.6)	461.14	<.001
With cousins	449 (0.7)	383 (0.6)	66 (2.3)		
By themselves	2,248 (3.6)	2,057 (3.5)	191 (6.8)		
Dormitory	244 (0.4)	180 (0.3)	64 (2.3)		
Education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1,157 (1.9)	1,061 (1.8)	96 (3.4)	271.00	<.001
High school	15,862 (27.6)	15,025 (25.5)	837 (29.6)		
University	31,396 (50.8)	30,061 (50.9)	1,335 (47.2)		
Unknown	13,446 (21.7)	12,887 (21.8)	559 (19.8)		
Educational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999 (1.6)	921 (1.6)	68 (2.4)	309.14	<.001
High school	19,379 (31.3)	18,426 (31.2)	953 (33.7)		
University	28,881 (46.7)	27,659 (46.9)	1,222 (43.2)		
Unknown	12,612 (20.4)	12,028 (20.4)	584 (20.6)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24,604 (39.8)	23,408 (39.7)	1196 (42.3)	160.81	<.001
Middle	28,494 (46.1)	27,458 (46.5)	1036 (36.6)		
Low	8,763 (14.2)	8,168 (13.8)	595 (21.0)		
Experience of sex education					
None	14,029 (22.7)	13,169 (22.3)	860 (30.4)	101.28	<.001
Have	47,832 (77.3)	45,865 (77.7)	1,967 (69.6)		

3.2 성경험 유무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

건강행태 특성들을 성경험의 유무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Table 2와 같이 차이가 나타났다.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주 4일에서 주 7일 동안 하루에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가 20.2%이었고, 성경험 있는 청소년 중에서는 27.7%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110.25, p<.001). 주당 4~5일 동안 격렬한 신체운동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22.9%이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1.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122.23, p<.001). 근력 강화 운동의 경우,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14.0%가 주당 4~5일 정도 운동을 한 반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9%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292.98, p<.001).

스트레스 인지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가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37.0%이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4.3%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63.44, p<.001). 슬픔·절망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24.2%이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9.6%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339.48, p<.001).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는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11.6%이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1.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265.08, p<.001). 자살계획의 경우,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3.6%가 자살계획이 있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10.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304.19, p<.001).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2.3%가 자살시도가 있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9%가 자살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351.64, p<.001).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37.3%가 음주 경험이 있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76.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1719.54, p<.001). 마지막으로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10.9%가 흡연 경험이 있었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53.3%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4311.82, p<.001).

3.3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행태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행태는 Table 3과 같다. 피임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38.5%이었고, 항상 피임을 하는 청소년은 37.8%로 나타났다. 피임 방법은 콘돔이 4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질외사정(8.5%), 피임약 (3.0%), 월경주기법 (2.0%), 응급피임약 (0.5%), 자궁내장치(0.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 of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Sexual Experience (N=61,861)

Variable	Total	Non-experienced (n=59,034)	Experienced (n=2,827)	x^2	p
	n(%)	n(%)	n(%)		
Days of physical activity over 60 mins per a day					
None	22,269 (36.0)	21,436 (36.3)	833 (29.5)	110.25	<.001
1-3days/week	26,910 (43.5)	25,699 (43.5)	1211 (42.8)		
4-7days/week	12,682 (20.5)	11,899 (20.2)	783 (27.7)		
Days of intensive physical activity					
None	14,687 (23.7)	14,158 (24.0)	529 (18.7)	122.23	<.001
1-3days/week	32,741 (52.9)	31,334 (53.1)	1,407 (49.8)		
4-5days/week	14,433 (23.3)	13,542 (22.9)	891 (31.5)		
Days of muscle exercise					
None	29,798 (48.2)	28,798 (48.8)	1,000 (35.4)	292.98	<.001
1-3days/week	23,123 (37.4)	21,972 (37.2)	1,151 (40.7)		
4-5days/week	8,940 (14.5)	8,264 (14.0)	676 (23.9)		
Perceived stress					
Intense	23,076 (37.3)	21,823 (37.0)	1,253 (44.3)	63.44	<.001
Moderated	26,157 (42.3)	25,115 (42.5)	1,042 (36.9)		
None	12,628 (20,4)	12,096 (20.5)	532 (18.8)		
Experience of sadness or hopelessness					
None	46,435 (75,1)	44,727 (75.8)	1,708 (60.4)	339.48	<.001
Have	15,426 (24.9)	14,307 (24.2)	1,119 (39.6)		
Thought of suicide					
None	54,406 (87.9)	52,195 (88.4)	2,211 (78.2)	265.08	<.001
Have	7,455 (12.1)	6,839 (11.6)	616 (21.8)		
Plan of suicide					
None	59,481 (96.2)	56,937 (96.4)	2,544 (90.0)	304.19	<.001
Have	2,380 (3.8)	2,097 (3.6)	283 (10.0)		
Attempt of suicide					
None	60,301 (97.5)	57,698 (97.7)	2,603 (92.1)	351.64	<.001
Have	1,560 (2.5)	1,336 (2.3)	224 (7.9)		
Experience of drinking					
None	37,699 (60.9)	37,027 (62.7)	672 (23.8)	1719.54	<.001
Have	24,162 (39.1)	22,007 (37.3)	2,155 (76.2)		
Experience of smoking					
None	53,899 (87.1)	52,578 (89.1)	1,321 (46.7)	4311.82	<.001
Have	7,962 (12.9)	6,456 (10.9)	1,506 (53.3)		

Table 3. Sex Behavior of Sexual Experienced Adolescents (N=2,827)

Variable	Mean±SD/n(%)
Contraception	
Always	1,070 (37.8)
Most likely	374 (13.2)
Seldomly	295 (10.4)
None	1,088 (38.5)
Methods	
Condom	1,336 (47.3)
Coitus interrupts	241 (8.5)
Contraceptive pills	84 (3.0)
Menstruation cycle	57 (2.0)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14 (0.5)
Intrauterine device	7 (0.2)
None	1,088 (38.5)

4. 논의

본 연구는 2017년도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성문제 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소년 61,861명으로 이들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은 4.6%이었으며, 남학생의 성경험이 70.5%로 여학생의 29.5%보다 2.4배 이상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성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선행연구[11,19-22]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된 것과 일치 하였다.

학급에 따른 성경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13]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1학년에 비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경험이 높게 나타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성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성숙뿐만 아니라 성 행동도 성인과 비슷하게 변화함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Boo[16]의 선행연구에서 처럼 연구 논문에 활용한 문항이 성경험의 유무만을 확인하여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 시기부터의 성경험이 누적되어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 그룹에서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6,22]들에서는 학업성적과 청소년의 성경험이 무관한 변수로 보고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의 성경험과 학업성적의 관계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연구하여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에서 성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11,12,22,23]에서 가족과의 동거 여부가 성경험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가족의 규율이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수준에서는 높거나 낮은 그룹에서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yo 등[11]의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중산층보다는 경제수준이 아주 높은 경우 성경험이 많고, 아주 낮은 경우에도 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경제 수준이 낮은 군의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이 많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선행연구[21,24]들과는 상반되었다. 따라서 경제 수준과 청소년의 성경험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건강행태 중 운동과 성경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기적으로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성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Hyun[25]의 선행연구에서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일수가 많을수록 성관계 경험률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보다 적당히 하거나 많이 하는 경우에 성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운동은 성호르몬 분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꾸준한 운동은 성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26,27].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도 운동과 성경험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스트레스 인지를 많이 느낄 때, 슬픔·절망감 경험이 있는 경우, 자살 생각·계획·시도가 있는 청소년들에서 성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Hallfors[28]는 성적으로 활발한 청소년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청소년보다 우울, 자살 사고 및 시도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Kim[29]의 연구에서도 남녀구분 없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성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자살 행위를 시도할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성경험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련성을 찾아 전문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그룹에서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와 흡연 사용이 성경험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한 Pyo[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Boo[16]는 청소년기의 흡연, 음주, 성경험은 성인기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의 성행위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단순하게 성인의 행동만을 모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사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성관계 시 대체적으로 피임을 하지만, 피임을 하지 않거나 가끔 피임하는 청소년도 48.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피임 실천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여전히 청소년이 임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 그룹에서 성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성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성경험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6,21,23]. 이에 성교육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으며 특히 피임의 중요성과 피임 방법에 대해서 청소년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들어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의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한 자료이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성행태와 성경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밖의 청소년에게도 연구를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단변량 분석에 그쳐 청소년의 성경험과 관련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성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통제하거나 성경험에 의한 요인과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다변량 분석을 이용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 건강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경험과 건강 행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 분석을 하였다.

청소년의 성경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거주형태에서는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청소

년의 성경험이 많았다. 건강행태에서는 꾸준히 운동을 하는 그룹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슬픔·절망감, 자살 생각·계획·시도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음주와 흡연이 성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은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 건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청소년의 성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청소년의 대표성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내의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REFERENCES

[1] Y. S. Ha, J. H. Lee, S. H. Kim, S. H. Kim, S. J. Kim & Y. Y. Kim. (2019). *Child & adolescent nursing*. Seoul : Shinkwang.

[2] J. G. Lim. (1998). *The effect of sex education program on high school girl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 Master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3] M. J. Song. (1995).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 Hakjisa

[4] H. J. Park & H. Cho. (2017). Contents analysis of addiction prevention middle school text.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1),* 19-27.
DOI :10.4094/chnr.2017.23.1.19

[5] C. M. Chun. (2010). *Sexual Behavior of Youth in Korea dissertation.* Master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nam

[6] H. J. Kwon, K. H. Kim, M. H. Choi & H. Y. .Kim. (2006).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Female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15(2),* 170-178.

[7] Korea Centers for Disease. (2016). The 12th Korea You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Korea Centers for Disease [Online]. www.cdc.go.kr

[8] Korea Centers for Disease. (2017).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Korea Centers for Disease [Online]. www.cdc.go.kr

[9] Korea Centers for Disease. (2015). The 11th Korea You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Korea Centers for Disease [Online]. www.cdc.go.kr

[10] S. A. Hong & S. S. Moon. (2009). Individual and famili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female adolescents pregnancy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6(4),* 107-118.

[11] E. Y. Pyo, J. Y. An, J. O. Jeong & Y. J. Yi. (2016). Effects of Drinking, Smoking and Drug use Experience on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Using the Data of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from 2010 to 2014.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29(3),* 299-309.

[12] S. H. Gwon & C. Y. Lee. (2015). Factors that Influence Sexual Intercours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data from the 8th (2012)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45(1),* 76-83.
DOI : 10.4040/jkan.2015.45.1.76

[13] K. H. Kim, H. J. Kwon & H. K. Chung. (2004).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male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6),* 954-963.
DOI : 10.4040/jkan.2004.34.6.954

[14] J. H. Lee. (2007).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xual Intercourse. *Studies on Korean Youth, 18(2),* 111-131.

[15] J. O. Yu, H. H. Kim & J. S. Kim.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Debut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3),* 159-167.
DOI : 10.4094/chnr.2014.20.3.159

[16] Y. J. Boo, M. J. Kang & J. S. Yi. (2017).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exu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30(2),* 154-163.
DOI : 10.15434/kssh.2017.30.2.154

[17] K. G. Park., M. Kwon (2018) A covergenc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pregnance experience and suixidal behavior in female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45-559.
DOI : 10.15207/JKCS.2018.9.11.549

[18] C. J. Chang., W. J. Lee (2019) The Trends of Youth Research :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in 2010-2018.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2),* 307-314.
DOI : 10.15207/JKCS.2019.10.12.307

[19] E. H. Song, M. Y. Bang & J. S. Hong. (2016). Comparison of Self-Control, Self-Esteem,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between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and Adolescents without Risk..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7(1),* 167-187.
DOI : 10.19049.JSPED.2016.17.1.07

[20] E. S. Cho. (2013). Associations between the internet pornography preference and adolescents risk sexual behavior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0),* 291-314.

[21] M. Y. Kim & H. S. Son. (2017). A study on infuencing factors of sexual experience among korea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3),* 611-630,
DOI : 10.22251/jlcci.2017.17.13.611

[22] G. Y. Lee. (2016). Sexual behaviors and sexual experience of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71-80.
DOI : 10.5762/KAIS.2016.17.12.71

[23] K. Peltzer. (2010). Early sexual debut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in school adolescents in eight African countries, *Acta Paediatrica, 99(8),* 1242-1247
DOI : 10.1111/J.1651-2227.2010.01874.x

[24] J. Y Kim, D. E. Lee & Y. K. Chung. (2013). The Impact of Academic Stress on Delinquent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hild welfare, (41),* 101-123

[25] H. K. Hyun. (2018). *Study on the Association with Sexual Intercourse and healthy life style in Adolescents.* Master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26] S. B. Cho & D. J. Kim. (2014). Change of outdoor exercise equipment of elderly women on aging hormone and sex hormon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3(5),* 1441-1449.

[27] M. S. Ha, J. H. Kim, D. Y. Kim & J. W. Kim. (2017). Effect of regular after-school physical education on blood lipids, sex hormone and growth hormone in ob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3(2),* 163-172.
DOI : 10.7778/jpkm.2016.30.3.108

[28] D. D. Hallfors, M. W. Waller, C. A. Ford, C. T. Halpern, P. H. Brodish & B. Iritani. (2004).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risk; association with sex and drug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7(3),* 224-231.
DOI: 10.1016/j.amepre.2004.06.001

[29] H. S. Kim. (2015). Effects of sexual intercourse on suicidal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2),* 183-191.
DOI : 10.4040/jkan.2015.45.2.183

이 한 나(Han Na Lee) [정회원]

· 1996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병원 간호사
· 2019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아동간호, 성장발달
· E-Mail : tjfdlrwo@naver.com

조 해 련(Haeryun Cho) [정회원]

· 201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성장발달
· E-Mail : chr@wku.ac.kr